

다산포럼

김정남



[오피니언]

1994년 봄, 나는 대통령의 일본과 중국 국빈 방문을 수행했다. 이미 100년 전에 일본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동양의 패권을 놓고 담판을 벌였다. 한국은 그 반열에 끼지 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담판의 제물이 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육중에서 쓴 동양평화문이 고작이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를 성취한 대한민국이 떨어지는 3각 외교의 그 현장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굳이 수행했던 것이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정상이 각각 그 수행원들을 소개할 때 나는 중국 지도자들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친한과 부러움,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호기심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방문기간 내내 곤분하다 싶을 정도의 환대를 받았다.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또 보다 많은 경제적 협력을 얻어내고 싶어 했다. 내가 그 때의 일을 아직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눈빛이 준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간헐적인 중국여행을 통

하여,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갈 때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어제의 그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었다. 상전벽래란 중국의 번호를 두고 하는 말로 들렸다. 김정일이 했다는 전지개벽이라는 말도 실감으로 다가왔다. 10

문화·도덕 국가로의 길

역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이끌고 그들 중국의 지도자들은 소강(小康), 화해(和諧), 굴기(掘起)로 안전하게 거대 중국을 이끌어왔다.

반면에 한국은 소강, 화해, 굴기로 한발한발 나아가는 동안,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심하게는 “방향 잃은 배”라는 조롱과 수모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모처럼 그 중심에 서는가 했더니 어느새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동북공정 등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는 또다시 변방으로 밀려나는 비애를 맛보고 있다.

사전보도 등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모두가 가볍고 잠망스런 행동이었다. 그러한 행동이 대국의식에 짖어있는 거 같다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 굴기하는 중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중국여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일부 한국인의 주악하고 방자한 처신은 동족인 우리에게도 눈꼴이 실 정도이다.

중국과의 수교 20년 동안, 교류는 양적으로 업청나게 팽창했지만, 정신적인 교감은 거의 없었다. 중국 출장이나 관광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어설픈 과시욕과 돌출행동 등 그 모든 것의 집적이 반한 감정이나 혐한론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80만 명의 한국인과 4만3천 개의 한국기업들이 이러한 경향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들은 ‘겸파마다’(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운동이다. 뛰어해서 자못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캠페인이나 대중요법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긴 연후에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는 말이 한국인에게 영락없이 들어맞고 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라. 먼저 ‘내 탓이오’를 고백해야 한다.

나는 베이징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한국, 한국인의 삶 깊은 한국인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높은 도덕과 문화, 그 존엄함으로 하여 감히 아무도 우리를 트집잡거나 업신여길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힘이 아닌 도덕과 문화로 우리를 지키고 살 아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선인(先人)들이 동방의지국을 세워온 것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백범(白凡)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도 진정 이것이었을 것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현지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나눌 수 없는 자비의 발현이다.

‘생명’, 그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정신적인 마음과 육신인 몸을 말한다. 마음과 몸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북지국가이면서 선진국일 것이다. 생명 나눔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역시 장기기증과 골수기증이라 할 수 있다.

기증 뇌사자 수는 1999년 162명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인구 100만 명당 3.1명 정도의 수준이고 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30명, 미국은 25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의 경우 ‘장기기증을 절대 거부한다’는 표시가 없으면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북지적 동의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하는 ‘장기기증 의사표’

생명 나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말 현재 장기기증 희망자의 수는 55만5천743명에 이르고 장기기식인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대기자는 1만8천646명에 달한다. 현재 1천55건, 모두 1만3천618건의 장기기식이 실행된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의 4천880만 중 1~2%만이 장기기증을 희망하였고, 장기기식 대기자 중 6.2%만이 장기기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올해 장기기증을 희망하였고, 장기기식 대기자 중 6.2%만이 장기기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장기기증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刻意하는 전통관습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존엄한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리는 생명 나눔이라는 사고로 바뀌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정교한 변화에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기증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刻意하는 전통관습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존엄한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리는 생명 나눔이라는 사고로 바뀌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정교한 변화에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스님>

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장기기증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기증 의사를 밝힐 때 바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표시 대상자를 애초부터 제한하고 제도 시행 전, 30여만 명에 이르는 장기기증 등록자 경우, 운전면허증에 표시를 원한다는 별도의 서명이 없으면 장기기증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장기기증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刻意하는 전통관습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존엄한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리는 생명 나눔이라는 사고로 바뀌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정교한 변화에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스님>

도시미관 해치는 광고물 살포 말아야

최근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승용차 한 대가 획 지나면서 차창으로 뭉개를 뿐만 아니라 광고물이었다. 그 때가 저녁 7시30분이었는데 길거리에는 각종 광고물들이 뒤덮여 있었다. 마치 가을 단풍잎이 쌓인 형국이었다.

광고물은 대리운전을 비롯해 대부업체,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광고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업에 쓰기보다는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형형색색 대부업·유흥업소 광고물들이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짜증이 났다.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도 화가 났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구잡이로 저렇게 뿐만 아니라 표지판을 날리는데 정말 짜증난다”고 했다.

전봇대 같은 곳은 단속이 강화돼서인지 광고물 부착이 많이 줄었는데 길거리에 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는 갑수록 늘고 있다. 매일 새벽 수많은 전단지를 치우느라 힘겹게 벗질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마구잡이로 광고물 살포를 자제하기 바란다.

▲ 정진혁·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벌초·성묘때 말벌 부르는 원색 옷·화장품 자체를

지난 4일 오후 무안군 청계면 야산에서 말벌집을 채취하던 김모(59)씨가 벌떼에 쏘이며 숨졌다. 또 지난달에는 대구 달성군에서 벌초하던 손모씨가 숨지고 포항 구룡포에서도 벌초하던 정모씨 등 5명이 벌에 쏘이며 치료를 받았다.

올 들어 말벌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장마철이 깊어지면서 벌들이 번식할 수 있는 생육 환경이 좋아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맹독성 말벌집 채취나 벌초시 아무리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벌집을 건드리면 벌들의 공격으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

▲ 박주익·목포시 옥암동

[시설]

‘추석 민심’ 얻으려면 물가부터 잡아라

추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목 특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채소, 과일, 육류 등 제수용품 값이 치솟으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겨만들어볼 뿐 구입은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IMF 사태’ 이후 최악의 불황 속에서 모처럼 추석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석물가만

은 잡겠다며 지난달부터 21개 성수품의 가격을 점검하고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광주시가 집계한 올 추석물가는 1주일 전보다 배추가 56%, 사과는 14%나 뛰었다. 지난해 추석 대목에 비해서도 포도 66%, 무 42%, 삼겹살 38% 등 물가상승폭이 매우 가파르다.

‘반짝 단속’이나 출하량 조절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에다 기상이변에 따른 출하량 감소, 고물가 등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도 무관할 수 없다. 9월 위기설

농어촌 마을도서관 건립 더 활성화돼야

전남지역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에 전남 9곳이 포함됐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등 10곳에 농어촌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반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 건립은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6억원을 들여 9개 마을에 소규모 도서관을 짓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사)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은 (주)NHN, 광주일보가 지난 8월 협약식을 갖고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에 동참했다. 이번에 학교 마을도서관 10곳이 선정된 것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은 문화 소외지역이다. 마을이나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곳이 아직 수두룩하다. 전남도는 오는 2012년까지 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건립, 최소한 3천권 이상의 장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농어촌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지식을 총전하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시설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끌어주는 공동체 공간이자 도·농간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자금이다. 전남도는 도서관이 부족한 시·군을 중심으로 매년 공공도서관 4곳, 작은 도서관 15곳을 선정해 지원하거나 신축할 계획이지만 예산 및 장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 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마을도서관 건립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노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의 현실에서 평생교육 및 건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도서관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等鼓

떡은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까. 다소 애매한 이 물음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 한 가지 수치가 존재하긴 하는데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07년에 내놓은 한국인 소비 식품 서열이다. 떡은 서열에서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한국인들이 즐겨 찾지도 않고 인기도 썩 없는 것으로 애매된다.

떡의 라이벌이라 여겼던 빵은 떡을 멀찌감치 제치고 18위에 랭크돼 있다. 밀가루가 다소비 1위고 다음이 설탕, 3위는 탄산음료이며 라면이 6위다. 피자와 만두가 아직 떡보다 뒤쳐져 있어 다소 위안이 되지만 이 통계로 지난 2006년 작성된 것이라 지금은 추월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떡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 음식인데 떡을 짓는 시루가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 발달됐다. 이로 미루어 조상들은 고물을 생산하게 되면서부터 떡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떡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기 신라본기에 나온다. 신라 3대 왕위

이르고 2012년 500억원을 목표로 급진화하고 있다.

떡

떡종에서도 송편은 제일 먼저 수확한 햅쌀로 만드는데 이를 올려놓고 차례를 지내는 추석이 다가온다. 조상들의 보살핌뿐 아니라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지혜에도 감사해야 할 것 같다.

/기호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논설실장 金東永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장 申港樂
면접국내 FAX 222-4918 (F A X 227-0118)		경영지원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면접국내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F A X 222-0118)
정책부 2200-616 여론조사부 2200-628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8 사전부 2200-69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5
(F A X 222-4267)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